

손흥민의 토트넘, 유로파리그 '우승'

손흥민, 프로 데뷔 15년 만에 우승컵 들어 올려
한국 선수로는 역대 네 번째 유로파리그 제패
토트넘, 맨유와 결승전서 존슨 결승골로 1-0 승

한국 축구 '간판' 손흥민(토트넘)이 유럽축구연맹(UEFA) 유로파리그(UEL) 정상에 오르며 프로 데뷔 15년 만에 첫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토트넘은 22일(한국 시간) 스페인 빌바오의 산 마메스 경기장에서 열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맨유 이상 잉글랜드)와의 2024~2025시즌 UEL 결승전에서 1-0 승리했다. 이로써 토트넘은 2007~2008시즌 리그컵 우승 이후 17년 만에 공식 대회 무관에서 벗어났다. 또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UCL) 출전권도 손에 넣었다. 아울러 1971~1972시즌 유로파리그 전신인 UEFA컵 초대 챔피언에 올랐던 토트넘은 41년 만이자 통산 세 번째 이 대회 정상에 등극했다. 반면 2016~2017시즌 이후 8년 만에 UEL 정상을 노렸던 맨유는 무관으로 시즌을 마쳤다. 유로파 결승을 앞두고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16위(맨유), 17위(토트넘)에 처해있던 두 팀의 맞대결은 '별망전'으로 불렸다. 손흥민도 자칫 자칫했던 무관 경력에 마침표를 찍었다. 2010년 함부르크에서 프로에 데뷔한 손흥민은 레버쿠젠(독일)을 거쳐 2015년부터 토트넘에서 뛰었으나 프로에서 한 번도 우승한 적이 없었다. 2016~2017시즌에는 토트넘이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2위에 그쳤고, 2018~2019시즌 UEL 결승에선 리버풀(잉글랜드)에 져 우승을 놓쳤다. 또 2020~2021시즌 카라바오컵(리그컵) 결승에서도 맨체스터 시티를 넘지 못해 준우승에 만족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 UEL 우승으로 마침내 프로 커리어에 우승 타이틀을 추가하게 됐다. 이 대회 전까지 손흥민의 유일한 우승 경력은 국가대표로 나선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금메달이 유일했다. 한국 선수로 UEL 트로피를 든 건 손흥민이 역대 네 번째다. 앞서 한국 축구 전설 차범근 전 축구대표팀 감독이 1980년과 1988년 각각 프랑크푸르트와 레버쿠젠에서 UEL 전신인 UEFA컵 정상에 올랐다. 또 2008년 제니트 상트페테르부르크(러시아)에서 뎀 미드필더 이호와 수

비수 김동진이 UEL 우승 축배를 든 바 있다. 주장 완장을 차고 유로파리그 트로피를 들어올린 한국 선수는 손흥민이 처음이다. 이날 선발 명단에서 제외돼 벤치에서 경기를 시작한 손흥민은 후반 22분 히사를리송 대신 투입돼 경기가 끝날 때까지 뛰었다. 공격 포인트를 올리지 못했으나, 수비에 헌신하면서 토트넘 우승에 이바지했다. 경기 초반부터 치열한 신경전이 펼쳐졌다. 토트넘이 전방부터 거센 압박을 시도했고, 맨유가 측면을 활용한 돌파로 득점을 노렸다. 전반 11분엔 맨유 수비수 매과이어의 클리어링 실수를 틈타 토트넘 존슨이 공을 낚아챈 뒤 올린 크로스가 흘렀고, 사르의 오른쪽 눈스톱 슈팅이 수비에 맞고 무산됐다. 이후에도 토트넘은 세트피스와 코너킥 등으로 맨유의 수비를 공략했지만, 마무리가 되지 않았다. 0-0의 균형을 좀처럼 깨지지 않는 가운데 중계 화면엔 벤치에 앉은 손흥민의 모습이 보이기도 했다. 맨유는 전반 16분 코너킥 찬스에서 매과이어가 내준 세컨볼 찬스에서 디알로가 수비수를 제친 뒤 오른쪽 강슛을 때렸으나 골문 옆으로 아슬아슬하게 흘렀다. 전반 막판으로 흐르면서 양 팀의 공방전은 더 뜨거워졌다. 전반 35분엔 맨유의 디알로가 반칙으로 경기를 받았다. 토트넘은 전반 42분 존슨의 선제골로 기세를 제압했다. 사르가 상대 진영 측면에서 크로스를 올렸고, 쇠도하던 존슨이 문전 결합 상황에서 밀어 넣었다. 후반 들어 침착하게 리드를 지켜가던 토트넘은 후반 22분 히사를리송이 부상으로 쓰러지며 손흥민이 교체로 전격 투입됐다. 골려가던 맨유가 후반 들어 공격의 고삐를 당기기 시작했다. 하지만 골문이 따르지 않았다. 후반 23분 호일룬이 빈 골문을 향해 시도한 헤더를 토트넘 수비수 판더펜이 골라인 앞에서 몸을 날려 걸어냈다. 이어진 맨유 요로의 슈팅도 토트넘



토트넘 홋스퍼의 손흥민이 21일(현지 시간) 스페인 빌바오의 산 마메스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4-25 유럽축구연맹(UEFA) 유로파리그(UEL)에서 우승한 뒤 동료들과 함께 트로피를 들어 올리고 있다. 토트넘은 결승전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1-0으로 꺾고 우승을 차지했으며, 손흥민은 생애 첫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의 육탄 방어에 차단됐다. 다급해진 맨유도 교체 카드를 꺼냈다. 호일룬, 마운트를 빼고 조슈아 지르크지, 알레한드로 가르나초가 동시에 들어갔다. 후반 중반을 지나면서 토트넘은 서서히 균하기에 들어갔다. 후반 33분엔 선제골 주인공인 존슨을 불러들이고, 수비수 케빈 단소를 내보내며 수비 숫자를 늘렸다. 양 팀은 후반 막판에도 교체 카드로 변화를 줬다. 맨유는 코비 마이누가 들어갔고, 토트넘은 아치 그레이와 제드 스펜스가 투입됐다. 그러나 더는 추가골이 나오지 않았다. 후반 추가시간 막판 쇼의 헤더는 비카리오 골키퍼가 막아냈다. 결국 토트넘이 맨유의 공세를 잘 막아내며 유로파리그 우승컵을 차지했다. /뉴시스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 지름길

축구협회 심판위
외부 전문가 위촉

대한축구협회는 2025년 심판 분야의 선진화와 공정성 강화를 위해 새롭게 구성된 심판위원회 명단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고 22일 밝혔다. 심판위원회 위원장은 지난달 제55대 집행부 임명 시 안내됐던 대로 문진희 위원장이 맡는다. 문 위원장은 심판으로 활동할 당시 프로 심판으로 활동했으며, 지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심판위원장을 맡았던 바 있다. 부위원장은 여성 심판 출신으로 국제심판 경력에 있는 최수진 부위원장이 선임돼 위원장 업무를 지원한다. 위원회는 △심판 교육의 질 향상 △다양한 분야 전문 인력의 영입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평가 시스템 구축 등을 주요 목표로 삼고 문 위원장과 최 부위원장까지 총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특히 심판 활동에 대한 이미지 개선과 외부 소름 확대, 심판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해 법률, 의료, 언론 등 다양한 외부 전문가들을 위촉했다고 한다. 위원회는 교육, 배정, 평가, 관리 등 주요 업무별로 기능을 세분화하여 운영 명칭 예정이며, 프로·아마추어 심판 대상 심전 중심 교육 확대, VAR 및 아카데미 교육 체계 정립 등도 병행 추진된다. /뉴시스

내일 전국소년체전 개막

27일까지 경남 김해서... 36종목 1만8893명 참가
평일 개최 최소화... 메달 집계 등은 실시 안해

대한체육회(회장 유성민)는 오는 24일부터 27일까지 경남 김해 일원에서 '제54회 전국소년체육대회'를 개최한다. 대한체육회가 주최하고 경상남도,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남도체육회가 공동 주관하며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후원하는 전국소년체육대회(소년체전)는 국내 최대 규모의 학생 스포츠 행사이다. 이번 대회는 김해종합운동장 등 48개 경기장에서 36개 종목(12세이하부 21종목, 15세이하부 36종목) 경기가 개최된다. 소년체전은 '꿈꾸는 우리, 어울림과 성장의 체전'이란 슬로건으로

선수들이 경쟁을 넘어 상호 존중과 배려로 함께하는 어울림체전을 준비하고 있다. 공부하는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평일 개최를 최소화했고, 개 폐회식은 별도로 운영하지 않는다. 또한 과열 경쟁을 방지하고자 시·도별 종합 시상 및 메달 집계 등은 이전 대회와 같이 실시하지 않는다. 아울러 학생선수들이 참가하는 대회인 만큼 선수 보호를 위한 관리 체계 구축, 대회 운영 방안을 마련해 대회 전 과정에 걸쳐 선수 중심으로 운영하게 되며, 주요 경기장 안전점검 등을 통해 안전하고 원활

한 대회 운영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기록 종목인 육상(17일)과 토너먼트 종목인 하키(22일), 축구, 야구, 테니스, 농구, 핸드볼, 복싱(이상 23일)은 경기 일정상 개최일보다 먼저 시작한다. 소년체전은 단순한 스포츠 경기를 넘어, 한국 체육의 미래를 이끌어갈 유망 선수들을 조기 발굴하고 스포츠 저변 확대를 목표로 하는 중요한 대회이다. 대한체육회는 참가 선수들이 긍정적인 경기 환경 속에서 기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최상의 대회 운영 시스템을 마련하고자 한다. 대회개요 및 경기일정, 결과 등 자세한 정보는 대회 홈페이지 및 대한체육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뉴시스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km²,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

전주매일 캠페인